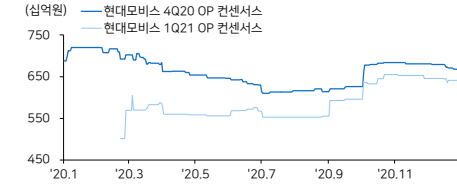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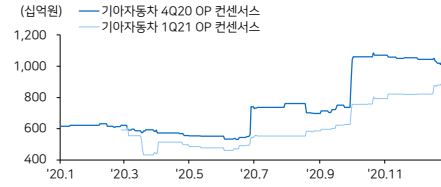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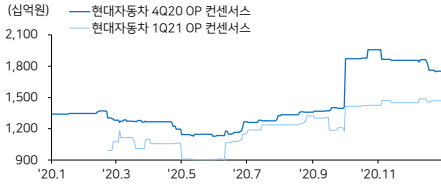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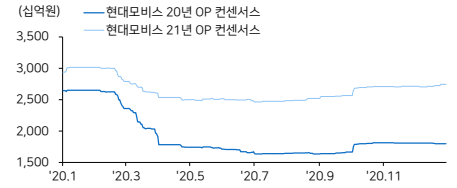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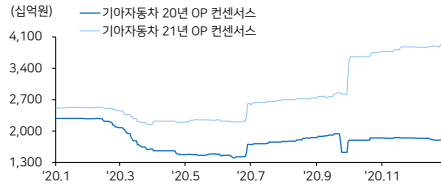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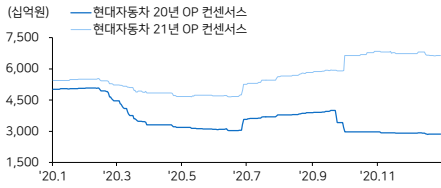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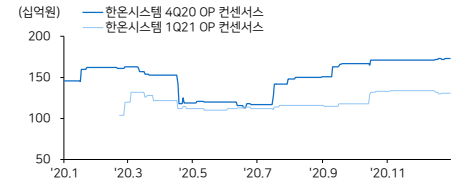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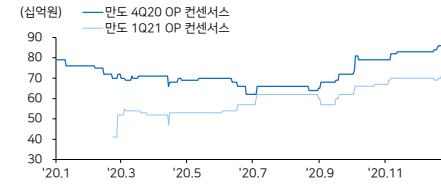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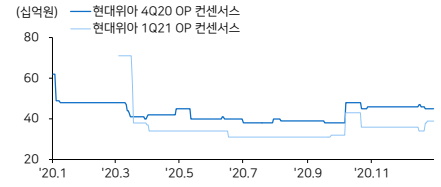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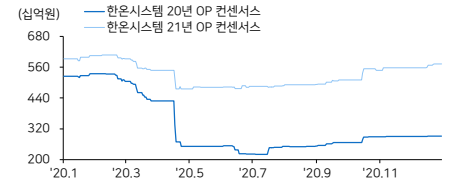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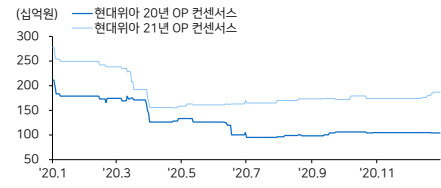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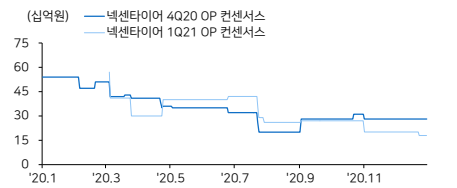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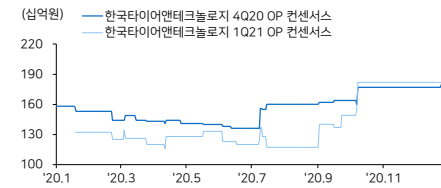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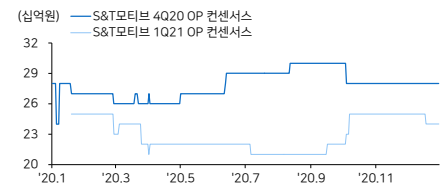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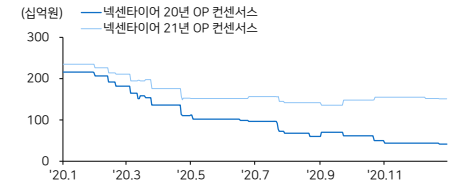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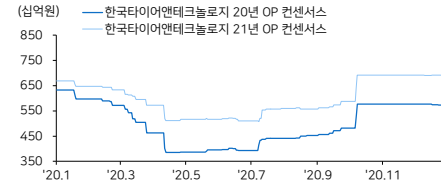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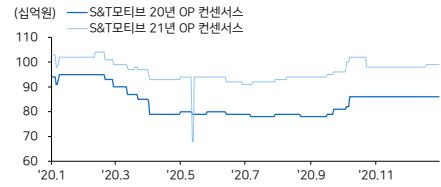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은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코로나·충당금 여파 없었다...' 기아, 호실적으로 '기아차 시대' 마무리 (블로터)

기아가 코로나 19와 2조원 규모의 충당금 설정 등의 잇단 악재 속에서 1년 전 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록,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부분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 호실적으로 '기아차 시대'를 마무리함. <https://www.bloter.net/archives/518188>

현대차에 삼성 OLED... '현-삼 동맹' 속도낸다 (동아닷컴)

현대차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에 삼성디스플레이 OLED가 들어감. 그동안 현대차 제조에 삼성이 합성한 사례는 많지 않았음. 현대차가 삼성성이 높은 첫 전용 EV에 삼성 제품을 채택함으로써 현대차그룹과 삼성의 협력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https://bit.ly/3i4CkV>

현대차 코나 EV 소비자에 문자 "끝까지 책임질 것" (오로타임즈)

현대자동차가 코나 일렉트릭(EV) 소비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화재 관련 리콜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는 현대차의 적극적인 리콜이 현대차그룹의 첫 전동화 플랫폼(e-GMP)을 채택한 제품 출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음. <https://bit.ly/3a9E5L>

*2025년 후 배터리 자급자족...EV, 테슬라 등에 3.9조 지원 (한국경제)

유럽연합(EU)이 29억 유로(약 3조8900억 원)를 투입해 테슬라, BMW 등 42개 기업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지원하기로 함. 배터리 자급 체계를 갖춰 수입량을 줄이고 배터리 산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구상. <https://bit.ly/3qYqKIM>

현대차 이상업 전무, 국제자동차페스티벌 '올해의 디자이너' 수상 (조선비즈)

현대자동차는 현대디자인담당 이상업 전무가 26일(현지시간) 제36회 프랑스 국제자동차페스티벌(FAI·Festival Automobile International)에서 '올해의 디자이너(Grand Prize of Design)' 부문에 수상했다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1/27/202101270078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현대차 강남 GBC 설계비경 검토...복합대로 사업도 지연 전망 (노컷뉴스)

현대차그룹이 국내 최고 높이인 569m에 105층 건물로 추진 중이던 강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에 대한 설계안 변경을 검토 중이어서 강남구가 추진하던 대규모 지하복합도시 건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https://bit.ly/3ps19Rr>

'K-배터리' 코로나19 좋고 유럽 투자 러시 (전자신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지만, LG에너지리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K-배터리' 3사의 유럽 투자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유럽 전기차 시장이 전환점 광학 기조와 맞물려 급속히 커지면서 생산능력을 키우고 있는 것. <https://www.etnews.com/20210127000117>

테슬라, 첫 연간 흑자 달성...지난해 7천900억 원 이익 (서울신문)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첫 연간 흑자를 달성. 테슬라를 27일(현지시간) 지난해 7억 2100만 달러(7967억 원)의 이익을 냈다는 내용의 실적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 <https://bit.ly/3pkfHCF>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 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야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게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